

지역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

그동안 우리나라 노조운동은 '정규직 대기업' 중심의
 기업별노동조합 운동이었다. 노조 운동의 당면과제로 떠오른
 산별노조건설은 노동조합운동의 폭과 넓이를
 비정규직·중소영세 사업장으로 넓혀 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평등과 연대의 요구만큼 노동자계급 내부의 평등과
 연대의 요구도 시급하고 절박하다.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생산직·사무직,
 여성·남성 따위의 구분과 울타리를 뛰어넘어 노동자계급
 내부의 통일성과 단결을 확보해야 할 시대적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드높은 요점이다.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의 현실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노동조합의 활동과 고민을 담아보았다.

서울지역인쇄노동조합.....박종철

서울남부지역금속노동조합.....김현미



3의 노조사무실에서 열린 휴회에 참가한
노동자들

인쇄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위하여

탁종렬

서울지역인쇄노동조합 위원장

1. 인쇄 노동자들의 삶 - '꾸겨진 각서'

서울지역인쇄노동조합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노조입니다. 인쇄 노동자들의 투쟁은 1926년 평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선배 노동자들의 요구는 '8시간 노동제', '아업금지', '산천산후휴가,'

'휴일휴가 보장' 등이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인쇄 노동자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사회보장제도는 남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어느 날 저번 사장이 불러서 '내일부터 직장에 나오지 말라'는 한마디면 그

것이 바로 '정리해고'입니다. 6년을 넘게 다닌 직장을 그렇게 그만두고도 "내가 언제 퇴직금을 주겠다고 했느냐"는 한마디 말에 분통터져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지만 "4인이냐! 5인이냐!"는 숫자놀이에 고개를 떨구어야 하는 것이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삶입니다.

지갑 한 칸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구겨질대로 구겨진 각서 한 장을 늘 보여주는 조합원 한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자신이 살아온 지난 일을 이야기하며 6년 전 입사 당시 회사 사장이 써준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전부인 각서 한 장이 이 분에게 6년의 노동에 대한 유일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2. 인쇄노동조합의 투쟁

서울지역인쇄노동조합은 1988년 1월 17일 만들어졌습니다. 11년의 기간 동안 수천명의 인쇄노동자들이 조합에 가입하고 또 떠나갔습니다. 쓰러질 듯한 어려움의 시기를 겪으면, 또다시 새로운 힘을 모아 보다 진전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모든 지역노조의 역사일 것입니다. 인쇄노조가 전개해온 '근로조건 개선 투쟁'은 몇 가지의 유형을 통해 전개되어 왔습니다.

① 분회별 투쟁 ② 지역별 투쟁 ③ 개별적 투쟁 ④ 법·제도 개선 투쟁으로 전개된 투쟁에는 지역노조의 수많은 고

민이 담겨 있습니다.

① 분회별 투쟁

분회별 투쟁은 지역노조에서 유력한 조직사업의 방법입니다. 개별로 존재하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역노조에서 안정적 분회건설 및 운영은 그 지역노조의 가장 유리한 인적·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수단이 됩니다. 인쇄노조는 그 동안 수많은 분회건설 투쟁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의식적으로 조직한 분회와 자생적인 노동자들의 요구를 모아 분회를 건설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분회 건설의 계기가 회사의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즉 근로조건 저하·해고·부당한 대우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며, 건설 초기의 투쟁은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승리로 나아가지만(물론 그 투쟁은 매우 격렬하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은 파업투쟁과 공장 점거라는 방식으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회사의 교묘한 탄압이 행해지고 조합원의 퇴사가 이루어지면서 1년이 못가 해산되는 과정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분회의 조직력이 강할 경우는 회사에 문을 닫고 폐업을 하게되면서 분회는 깨져갔습니다. 또한 인쇄산업의 특성상 책임기술자(기장이라 불림)의 의지에 좌우되는 경우를 흔하게 보게 됩니다. 물론 현재 조합원 가운데 분회

투쟁을 겪으면서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오랫동안 노동조합을 지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② 지역별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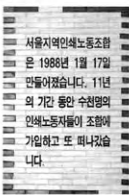
지역별 투쟁은 인쇄산업의 경우 읍지로 지역에 영세 인쇄업체가 밀집되어 있다는 인쇄노조의 특수한 경우에 기초

하여 전개되어 왔습니

다. 대표적인 투쟁이 1990년, 1992년의 단체교섭 체결 투쟁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조합은 읍지로 지역의 조사 직업에 기초하여 대표적인 50여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고, 30여개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투쟁은 해당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에 실패하고, 인쇄 노동자들의 '갇은 이직'이라는 특성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에 기반하지 못하는 사업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는 투쟁이었습니다.

인쇄노조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투쟁으로 지속적인 현장 선전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리 상담, 노보 배포, 지선

밧기, 집회 등을 통해 인쇄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사회개혁의 과제 및 방향, 정치적 선전 활동을 전개하여 왔고 인쇄노조가 힘든 과정에서도 노동조합의 깃발을 굳게 지켜낼 수 있는 대중적 힘을 확보하는 유력한 투쟁이 되고 있습니다.



③ 개별적 투쟁

개별적 투쟁은 주로 상담을 조직하여 노동조합이 직접 교섭과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노조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가 상담활동이지만 이는 직접적인 조직화로 남지는 못합니다. 매년 100건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담자를 조직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개선방안을 찾아보지만 상담자를 조직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의 문제해결이라는 자세 성격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④ 법·제도 개선 투쟁

법·제도 개선 투쟁은 1995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투쟁"을 전개한 이후 노동조합이 장기적인 전망을 찾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



인쇄노조 소모임 풍물패가 인쇄골을 돌며 각 가정과 현장의 인력과 아무 시고없이 돌 한허도 건강한 현장에서, 건강한 노동자로 뜻을 기록해달 바라는 고사를 지내고 기원했다. - <정월대보름 액막이 지신발기>

전개하는 투쟁의 성격은 갖습니다. 1995년 노동조합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 및 준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위의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당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아무런 자료나 연구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자료조사팀', '언론 홍보팀', '선전팀' 따위로 조직하여 직접 시행령의 문제를 찾고 근거를 마련하여 실태조사, 공청회, 청원, 서명운동, 집회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침내 1999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지만 근로시간, 시간외 수당, 연·

월차 휴가, 퇴직금, 해고로부터의 보호 등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모두 제외되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시의 투쟁에 대한 평가 중 주요한 것은 광범위한 인쇄 노동자들이 직접 이 투쟁에 참가하지 못한 사업이라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이 밖에 인쇄노조는 조직관리의 일환으로 '함께하는 동지'를 발행하고 이를 통해 선배 조합원, 상담자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으며, 풍물패, 축구반, 산행반, 기술반, 시사토론회 등의 소모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9년 1월부터는 실업극복 국민운동의 지원으로 '인쇄인 무료취업알선

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노조의 조직화 사업은 끈기와 개방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생활과 노동이 단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조건에서 노동조합으로 많은 인쇄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라는 틀 이외에도 다양한 모임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노동조합이 편하게 끌어안을 수 있는 개방적 조직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모임의 운영은 노동조합의 외연을 넓히는 주요한 통로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쇄노조는 인쇄산업의 기술 변화에 따른 고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

이라는 인식 하에 기술학교의 단초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 인쇄노조와의 협력을 통해 인쇄산업 기술변화의 방향과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한 자료 수집 및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3.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인쇄노조의 고민

지역노조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상근자의 헌신적 활동과 조합원의 조합을

지키려는 애정입니다. 인쇄노조가 11년의 역사를 지켜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준비할 수 있는 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쇄노조는 새로운 천년을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인쇄노동자들의 중심으로 서기 위해 몇 가지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노조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상근자의 헌신적 활동과 조합원의 조합을 지키려는 애정입니다. 인쇄노조가 11년의 역사를 지켜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준비할 수 있는 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① 우리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집단투쟁의 모습이 전개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을 무엇에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노동운동이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

고 격렬한 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만 그 어디에도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투쟁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인쇄노조의 투쟁을 한마디로 말하면 "더 나아짐을 위한 투쟁"이 아닌 "더 나빠지는 것에 대한 반대 투쟁"의 심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투쟁이 아닌 일부의 투쟁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영세업체라는 존재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본질적 문제인지, 아니면 그 동안 인쇄 노조의 주요 활동 방향의 한계로부터 기인하는

지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은 이 문제에 대해 "인쇄노동자가 인쇄 노동자에게 제시하는 목표와 요구내용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적 투쟁은 매시기 대중의 불만을 파악하여 문제해결의 방향에 입각한 요구를 정식화하여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투쟁계획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제시하느냐에 좌우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은 1999년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노동조합운동의 승리를 위해 4대 요구를 제시하고 이 싸움에 노동자들을 조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쇄 노조는 무엇을 내걸고 인쇄 노동자들과 함께 하자고 할 것인가? '노동시간 단축',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정리해고 반대'라는 요구를 가지고 정말 인쇄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

인쇄노조는 이러한 원칙적 요구만으로는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인쇄 노동자들을 조직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체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옳은 요구라 해도 대중적인 공분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입니다. 인쇄노조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인쇄노동자들의 요구를 집중하여 "인쇄인 선언(가칭)"을 만들어 이 운동에 광범위한 참여를 조직하여 장기적으로는 인쇄산업의 산업법 단체협약의 모태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주목하지 못했던 기술교육의 문제에 적극 대처할 생각입니다.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대부분의 기술을 개별적인 경험에 의존하고 있고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포기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인쇄노동자가 이번에 취업알선센터를 만들게 된 것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인·구직이라는 작은 요구라도 실천함으로써 인쇄 노동자들의 의식변화를 이루고 점차적으로 요구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② 영세업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호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 가장 고통스런 것은 삶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사회적으로 느끼는 소외감입니다. 자신의 청춘을 바쳐 어느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흔이 되면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고 자식에게 떠넘긴 자신의 기술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인쇄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개선과 불안한 지위에 대한 법적 보장일 것입니다.

인쇄 노동자들은 개별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서문경의 사진

서울지역 인쇄노동 소모임의 운영은 노동조합의 활동폭을 넓히는 주요한 통로이다. 사진은 조합원들의 산행모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 주택 건강 노후 등의 문제는 오로지 개인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알날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IMF는 영세업체 노동자에게 더욱 심각한 고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깎이고 시간외수당이 없어지면서 한 조합원은 일을 마치고 고구마 장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조합원에게 지금의 인쇄노조는 아무 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영세업체 노동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법적 보호에서 소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우선이 아니라) 더욱 심한 사회적 소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먼저 법의 적용이 지켜져야 합니다. 임금이 지불되고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해 법에 호소해도 시간을 끌면 된다는 사업주의 한심한 사고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며 일차적 원인은 법·제도의 허점에 있습니다.

인쇄노조의 새로운 부흥은 여기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4. 인쇄노조의 비결

인쇄노조는 전체 노동운동의 성장에 긴밀하게 영향받아 왔습니다. 인쇄노조를 만들 때는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서울지역인쇄노조가 만든 작업안전 스티커. 울지로 인쇄골목 곳곳에 붙여, 작업안전과 노조에 대한 인쇄노동자들의 관심을 높였다.

힘이 있었고 1990년, 1992년 집단적 단체교섭투쟁의 승리는 노동조합운동의 절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영향받아 왔습니다.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문제는 지역노조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1995년, 1996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투쟁"에서 느꼈고, 지난 1998년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위한 투쟁"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사회의 관심을 조직하였고 부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만의 투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교훈 또한 알고 있습니다. 연대투쟁의 힘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기에, 지역노조들이 부쟁력이 높고 조합원이 정치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체 노동조합운동이 지역노조의 투쟁을 지원하지 않고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을 때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산별노조의 건설이 노동조합운동 최대의 화두가 되어있는 지금 지역노조의 경험과 활동은 작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